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영국, 'Genome UK' 실행 계획 발표



CONTENTS

01

포커스

- 영국, 'Genome UK' 실행 계획 발표 1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Walmart, 원격의료업체 MeMD 인수 예정 4
- 독일 Biersdorf, 고객 맞춤형 스킨케어 브랜드 Routinely 설립 4
- 일본, 디지털 기술로 달라지는 치료와 다양해지는 제약비즈니스 5
- 일본, 병원·진료소의 사이버보안 실태 조사 결과 발표 5
- 건강데이터 분석, 감염병의 진단과 결과 예측 적용시 유의사항 6
-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기있는 TOP 5 유형 6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COVID-19 대응 보건 인력 고용과 육성에 70억 달러 투자 7
- 미국,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량구매 정책 필요 7
- 유럽 EC, 의료기기에 대한 강화된 법 적용 8
- 유럽 EC, 담배 제품 지침 검토 보고서 발표 8
- 일본, 민간기업에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협력 요청 9
- 인도, 검은곰팡이감염병에 대한 우려 확산 9
- WHO, COVID-19 변이 바이러스 명칭 변경 10
- WEF, 백신 신뢰도 제고방안 도출 10



영국, 'Genome UK' 실행 계획 발표

영국은 유전체(genome)에 기반한 의료기술개발 계획인 유전체 UK의 2021~2022 회계연도 중 추진할 예정인 유전자 기반 진단과 맞춤형 의약품 개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 연구 플랫폼의 구축과 확산 등에 초점을 맞춘 세부 실행 계획(Genome UK: 2021 to 2022 implementation plan)을 발표

[1] 첨단 유전공학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전체 UK

■ '20년 9월, 영국 정부는 첨단 유전공학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인 'Genome UK'를 발표

- Genome UK 계획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체학 연구와 새로운 유전체학 기반 헬스케어 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표 설정
- Genome UK는 △진단과 맞춤형 의약품 △예방과 조기진단 △연구의 3가지 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24가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 서비스 인력 간의 공동 참여, 의료 서비스 관련 인력개발, 데이터 및 분석 등의 공통 주제와 관련된 21개의 실행 계획을 추가로 수립

[2] Genome UK의 3대 축

■ 첫 번째 축: 진단과 환자 맞춤형 의약품

- 질병의 진단과 계층화 및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유전체학과 일상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합하여 유전자 원인으로 발병하는 희귀질병이나 일반적인 질환의 조기 진단과 암 치료 메커니즘 등을 규명하는 유전체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
-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COVID-19 변이와 같은 전염병 확산 추적하는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유전체학의 가치는 이미 실증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유전체 기술은 암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할 전망

* 2021~2022 회계연도 기간 중 △희귀 질환과 특정 암에 대한 완전한 염기서열의 규명 △새로운 유전체 진단법을 연간 10만명의 환자들에게 시범 적용 △암의 차세대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실증 프로그램 추진 △COVID-19의 진단과 백신개발 △예방과 격리 전략 개발을 위한 염기 서열 분석 △병원균 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탐지 △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2021~2022 회계연도 중 유전체 UK 중점 추진 계획 □

주제	주요 내용
유전체 데이터의 다양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으로 과소대표되는 소수 인종 그룹의 유전체 데이터셋 확보로 보건 서비스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 관련 분석 도구의 개발에 지역 사회도 참여
환자 개인의 완전한 염기서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귀 난치성 질환과 특정 암을 가진 환자 개인의 완전한 염기서열분석으로 질병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 수립 NHS와 UK 바이오뱅크가 보유 100만개 유전자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첨단 유전체학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1단계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하고 광범한 유전체학 기반 암 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와 신기술의 통합
차세대 진단 및 치료 도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인성 위험 지표 평가를 포함한 차세대 진단 및 치료 도구와 신약 개발, 스마트 치료 시범 도입 '21년 중 5백만명이 참여하는 의료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2년에는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접근 방법에 대한 피드백 기반 시범 연구를 실시
글로벌유전체및 보건데이터연합(Global Alliance for Genomics and Health, GA4G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체와 보건 관련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기준과 정책을 개발하는 GA4GH의 설립 및 자금 지원 전 세계 유전체학 연구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유전체 관련 데이터의 손쉬운 접근을 도모하고, 전세계 이해관계자들과 국가 및 기구들을 대상으로 GA4GH의 기준을 보급

■ 두 번째 축: 예방 및 조기 진단

-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료적 개입 중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Genome UK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모색
- 유전체 기술을 통해 모니터링의 빈도를 개선하고, 조기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질병의 위험도나 조기 단계 진단을 가능하도록 지원

* 2021~2022 회계연도 기간 중 △5백만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코호트 모집 △다중 유전자 위험 점수(Polygenic risk scores, PRS)의 추진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PRS 도입을 위한 증거 기반의 연구 지속 △순환종양DNA 50가지 유형의 고밀도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50~79세 14만명 데이터 축적 △다운증후군 등의 조기 진단을 위한 비침습적 태아 검사법의 개선 등을 추진

■ 세 번째 축: 연구

- '06년에 설립되어 50만명 이상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유전자 코호트인 UK 바이오뱅크(UK Biobank)와 영국의 보건 기록 시스템을 결합하여 대규모 유전체학 연구를 추진
- 영국 NHS·학계·연구기관·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암 치료 과정에서 유전자가 약물에 반응하는 기전을 연구하고,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을 활용

* 2021~2022 회계연도 기간 중 △과소대표되는 소수 인종의 유전자 확보로 유전자 데이터의 다양성 제고 △'21년 말까지 UK 바이오뱅크에서 50만명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보 △클라우드 기반 연구 플랫폼인 UK 바이오뱅크

연구 분석 플랫폼을 '21년 3분기부터 가동 등을 추진

[3] 공통 주제

■ Genome UK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구 윤리

- Genome UK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국 시민들의 광범한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들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신기술과 진료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

* 2021~2022 회계연도 기간 중 △윤리적 측면과 공공의 기대에 초점을 둔 신생아 유전자 검사에 대한 공공의 참여 △환자와 지역 사회의 참여 확대 △10만개의 유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환자 패널 참여 △공공 부문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구축 등을 추진

■ Genome UK 프로그램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 유전자 염기서열 데이터는 환자 개인의 유전적 변화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고, 유전체학 기반 헬스케어의 발전은 이러한 광범한 보건 데이터에 기반한 염기서열 분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화와 질병의 발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 이를 위해 UK 바이오뱅크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 의약 기업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하게 산재되어 축적된 유전체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데이터셋(datasets)을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코호트 기반의 연구가 가능

* 2021~2022 회계연도 기간 중 △유전체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연계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연구 환경 플랫폼 조성 △유전자 데이터와 관련 보건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준과 정책을 개발하는 글로벌 유전체 및 보건데이터연합(GA4GH) 기금 조성 등을 추진

■ Genome UK 프로그램에서 헬스케어 관련 인력의 질

- Genome UK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역할, 최신 지식 수준에 부응하는 역량의 확보, 고도로 전문화된 의사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참여 연구진들의 구성이 중요
- 환자에게 유전자 검사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역량, 복잡한 검사 결과를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역량, 때로는 윤리적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기술 및 의료적 복잡성을 돌파할 수 있는 역량 등이 필요

* 2021~2022 회계연도 기간 중 △Genome UK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실제 축적된 역량간의 격차 및 선호되는 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 조사 △현재 추진 중인 유전체학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와 증거에 기반한 교육·훈련 계획의 개발과 실행 등을 추진

[GOV.UK, 2021.05.19.]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Walmart, 원격의료업체 MeMD 인수 예정

■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Walmart)의 자회사인 월마트헬스(Walmart Health)社は 원격의료업체인 미엠디(MeMD)社의 인수를 '21년 5월 6일 발표하였고, 인수후 전국적으로 1차진료, 긴급진료, 행동건강관리(behavioral healthcare)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19년 설립된 Walmart Health는 1차 진료, 건강검진, 신체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MeMD의 인수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단계
- '10년에 설립된 MeMD는 일반적인 질병, 부상 및 행동 건강 문제에 대한 온디맨드 온라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 후 월마트헬스의 기존 대면진료를 보완할 예정
- '21년 3월 최대 경쟁업체의 하나인 아마존이 아마존케어(Amazon Care)로 원격의료 서비스계획을 발표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을 놓고 향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Healthcare Finance, 2021.05.13.; Forbes, 2021.05.20.]

독일 Biersdorf, 고객 맞춤형 스킨케어 브랜드 Routinely 설립

■ 글로벌 브랜드 니베아(Nivea), 유세린(Eucerin), 아트릭스(Atrix)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화장품업체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는 스킨케어 업체 디지털 및 고객 맞춤형 스킨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루틴리(Routinely)社를 설립

- Biersdorf와 벤처캐피털업체 9.5 Ventures는 공동출자 형식으로 스킨케어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세럼 등의 스킨케어 제품을 출시하는 Routinely를 네덜란드에 설립
 - * Routinely 브랜드는 13종의 스킨케어 세럼 제품을 D2C 형태의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직접 연계할 예정이며 벨기에와 네덜란드 및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기반으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할 예정
- Routinely 브랜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실시간 제품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스킨케어 행동 루틴을 '추적-검토-개선(track, review and refine)' 하는 시스템을 구축
- 소비자들의 자기평가 설문과 소비자 개인별 맞춤형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고객들의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과 대기의 질과 태양 자외선 등의 자연조건들을 반영하여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스킨케어 루틴을 제시

[Cosmetic design europe, 2021.05.19.; happi, 2021.05.19.]

일본, 디지털 기술로 달라지는 치료와 다양해지는 제약비즈니스

■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활습관병의 예방, 개선, 치료를 지원하는 ‘디지털 치료(DTx)’ 연구개발이 한창이며 일본 대형 제약회사들도 신사업 창출을 목표로 첨단기술 도입 및 타업종과의 협업을 가속화

- 일본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DTx 연구개발을 진행 중으로 큐어앱(CureApp)사가 개발한 니코틴 중독 치료앱은 '20년 12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치료앱에 대한 보험적용은 일본에서는 최초이며 금연치료 영역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
- 대형 제약회사도 디지털치료 분야에 진출 중으로, 다이니폰스미토모(大日本住友)제약은 의료기기 개발 벤처인 SaveMedical과 공동으로 당뇨병 관리지도용 앱을 개발 중이며 '22년 의료기기 인증취득을 목표로 임상시험을 개시
- 시오노기(塩野義)제약은 미국에서 개발된 소아 ADHD환자용 치료용 앱을 놓고 일본과 대만에서 독점적 개발권·판매권을 취득하고 임상시험 중으로, 동 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게임형식의 치료법을 제공하며 증상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

[みずほリサーチ&テクノロジーズ, 2021.05.; 日本経済新聞, 2021.05.24.]

일본, 병원·진료소의 사이버보안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일본은 의사회계시스템, 진료지원시스템 외 의료기관의 상호 정보공유, 원격의료 진전 및 새로운 개인건강기록(PHR) 구축이라는 사회적 요청을 배경으로 의료계의 정보통신기술(ICT)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사이버보안 대책 지연과 정보시스템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상황

- 일본의사회는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안 대책 실태와 잠재적인 리스크를 파악하여 의료기관이나 행정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의료기기센터와 합동으로 의료정보시스템 관리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의료현장의 조직체제를 조사한 결과, 원내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유하고 계획적으로 재검토하는 곳은 5.7%에 불과했으며 전문적인 담당부서가 있는 곳은 약 20%였으며 3분의 2는 점입하거나 원장이 직접 관리

*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에 관한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을 인지·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27.2%, 부정접속 등에 관한 상담창구 인지비율은 23.1%로 모두 30% 이하를 기록

- 사이버보안에 관한 리스크 관리체제를 보면, 사전대책의 경우는 환자·수진자 정보를 저장한 단말의 관리규정, USB메모리 등의 외부매체 관리규정에 대해 30~40%가 ‘없다’고 답변

[日医総研, 2021.05.; IT Media, 2021.05.21.]

건강데이터 분석, 감염병의 진단과 결과 예측 적용시 유의사항

■ 웨어러블 기기가 확산되면서 이를 통한 전염병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통합에 기초하여 확산 경향을 파악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과 관리 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가 축적하는 데이터의 해석과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

- 웨어러블 기기의 데이터를 해석할 때, 웨어러블 기기가 축적하는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센서의 정밀도 차이, 타 기기와의 비교 가능성 및 분석 모델의 과적합(Overfitting) 가능성, 맞춤형 디지털헬스 기기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 사회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등이 존재

* 과적합(Overfitting)은 인공지능(AI)이나 머신러닝(ML)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존의 축적된 데이터를 너무 세밀하게 추적함에 따라 예측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지 못하는 현상을 지칭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데이터 보호 수단의 강구, 데이터의 사용과 권리에 대한 참여자의 권리 보호, 사용자 참여의 권한 강화, 위험 발생 가능성의 최소화 등을 위한 지역적 프레임워크 구축 등이 요구

* 한편으로 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의 표준화와 보고 체계, 연구진과 기술 그룹 간의 데이터 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

[The Lancet, 2021.05.18.; HBR, 2021.05.19.]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기있는 TOP 5 유형

■ COVID-19 팬데믹 상황은 웨어러블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했으며, △피트니스트래커 △스마트헬스시계 △심전도(ECG)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바이오센서용 웨어러블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인기있는 웨어러블 유형으로 부상

- 사용자의 활동량이나 심박수를 트래킹하는 피트니스트래커용 웨어러블분야에서는 Fitbit의 Charge 4, Amazon의 Amazfit Bip, Garmin의 vívosmart 4 등의 인기가 높으며, Fitbit의 Versa 3, 삼성의 Galaxy Watch 3, Apple의 Watch Series 6가 스마트헬스시계 시장을 주도
- 심전도 모니터 시장에서는 AliveCor의 KardiaMobile 6L, Wellue의 DuoEK, VivaLNK의 Cardiac ECG Monitor가 인기가 높으며, 혈압 모니터 시장에서는 Omron의 Platinum, Withings의 BPM Connect, LifeSource의 Upper Arm monitor 제품이 주도
- 아직 시장 초기 형성 단계로, 장갑, 의류, 밴드 및 체내에 삽입하는 형태의 다양한 폼팩터를 가진 바이오센서(Wearable biosensor)용 웨어러블 시장에서는 Philips의 Biosensor BX100와 Wearable biosensor, Biofourmis의 BiovitalsHF와 Biovitals Sentinel 등이 출시

[Business Insider, 2021.05.21.; Wearable, 2021.04.23.]



4대 보건산업

미국, COVID-19 대응 보건 인력 고용과 육성에 70억 달러 투자

■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지속적인 COVID-19에 대응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중보건요원을 고용하고 육성시키기 위한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7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이번 투자로 COVID-19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지방 공공 보건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소년 백신 접종이 가시화됨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간호사 일자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도 배정
- 한편으로, COVID-19 대응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린 州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중 보건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건 인력을 모집할 수 있도록 44억 달러의 추경집행계획을 발표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미국구조계획의 일환으로 州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공중 보건 인력의 확대와 육성 및 현대화를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White House, 2021.05.13.]

미국,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량구매 정책 필요

■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P)는 연방 및 주정부에게 △어린이를 위한 백신(VFC) 프로그램 대량구매방식 △정기 대량구매방식 △여러 주의 공동 대량구매방식 등을 통해 처방약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환자를 지원할 것을 제안

- 최근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COVID-19 확산 등의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 의약품의 대량 구매를 통해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
- COVID-19 상황에서 800개 이상의 약품들이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 중 70개는 '20년 7월 기준으로 평균 3.1% 증가하였고, '21년 1월 기준으로는 832개 의약품이 평균 4.5%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멕시코,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약품 가격 대비 2.5배 높은 수준
- 주 및 연방 정부는 현재 이러한 전문 의약품의 대량 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량 구매는 혜택을 보는 계층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21.05.12.; Philadelphia Inquirer, 2021.05.12.]

유럽 EC, 의료기기에 대한 강화된 법 적용

■ EU집행위원회(EC)는 공중 보건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인 EU 의료기기규정(Medical Devices Regulation, MDR)을 '21년 5월 26일자로 발효

- 새로운 규정은 전례없는 COVID-19 팬데믹 상황과 EU 전역에서 중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행이 1년 연기된 것으로, 고관절 대치용 인공관절에서 반창고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영역에 걸쳐있으며, 기술 진보와 의과학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EU의 법적 규제를 변경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과정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EU 의료기기 규정은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 △투명성과 환자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기 경계 및 시장 감시 강화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
-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의료기기 유럽 데이터베이스(EUDAMED)를 통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기를 출시한 회사로 하여금 의료기기 성능 자료를 수집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기 성능에 대한 경계 수준을 제고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

[European Commission, 2021.05.26.]

유럽 EC, 담배 제품 지침 검토 보고서 발표

■ EC는 '16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담배제품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지침의 영향으로 EU에서 흡연율과 담배 제품의 사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동 보고서는 EU 각국의 상황과 담배 관련 새로운 시장의 발전 상황을 보다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 발병되는 암의 27%가 담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EU는 '40년까지 '담배 없는 세대(Tobacco-free Generation)'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효한 담배 통제 수단의 마련이 필요
- 담배제품 지침은 광범한 EU 역내 담배 제품의 통제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담배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강력한 경고, 담배 제품 유통 추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포함
- 또한 특정 가향 제품에 대한 금지, 담배 제품 성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수립,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을 언급

[European Commission, 2021.05.20.]

일본, 민간기업에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협력 요청

■ 일본의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經濟同友会)는 COVID-19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책과 기업의 협력에 대해 고노다로(河野太郎) 행정개혁담당상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

- 경제동우회측은 정부가 제시한 △기업 내 진료소, 기업과 건강보험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직장에서의 백신접종 △백신희가 및 근무체제 배려 등 희망자가 접종을 받기 쉬운 환경 정비 △백신포럼 도입에 관한 의견 제공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
- 이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사체 등의 백신접종에 기업의 자원 제공 검토 △기업 내 진료소에서 자사 직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접종 실시 △백신희가 등 사원의 백신접종 촉진 지원 △백신포럼 도입 환영 등 정부의 요구에 협력 등의 결과를 도출
- 기업 내 진료소나 기업이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종사자 파견을 검토하고 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백신접종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직원들의 집단 접종 외에 접종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등장

[經濟同友会, 2021.05.17.; NHK, 2021.06.03.]

인도, 검은곰팡이감염병에 대한 우려 확산

■ '21년 5월 22일 기준, 인도에서 검은곰팡이감염병(black fungus)이 8,848건 보고됨에 따라, 인도 정부는 검은곰팡이감염병 치료제 암포테리신B(Amphotericin-B) 23,000 바이알을 공급한다고 발표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검은곰팡이감염병은 털곰팡이(mucormycetes)의 일종인 검은곰팡이에 의해 발병되는 희귀질환으로, 주위 환경 어디에나 분포하지만 인간의 면역체계가 취약해질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는 특성 보유

* 현재 이 검은 곰팡이 감염증의 발생 추이는 COVID-19 신규 확진자수의 추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COVID-19는 인간의 면역체계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COVID-19 확진자는 이 검은 곰팡이 감염증에 취약

- 현재 이 검은 곰팡이 감염병은 인도 외에도 파키스탄과 러시아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 COVID-19 감염자 사이의 대면 접촉을 통해 확산
- 미국 국립바이오테크놀로지정보센터(NCBI)에 따르면, 이 검은 곰팡이 감염병은 현재까지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질병 통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

[CNBC TV18, 2021.06.01.; PubMed.gov, 2021.04.15.]

WHO, COVID-19 변이 바이러스 명칭 변경

■ 세계보건기구(WHO)는 '21년 6월 1일자로 COVID-19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된 국가명을 따라 명명하던 변이 바이러스 명칭을 그리스 문자로 변경한다고 발표

- 영국, 남아공 등지에서 처음 발견된 COVID-19 변이 바이러스는 각각 α , β 등으로 변경
- 그리스 문자가 붙는 변이 바이러스는 우려(concern) 변이 바이러스 및 관심(interest) 변이 바이러스이며,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과학적 명명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명명법□

국가/지역	과학적 명명법	WHO 명명법
 영국 켄트	B.1.1.7	Alpha
 남아프리카공화국	B.1.351	Beta
 브라질	P.1	Gamma
 인도	B.1.617.2	Delta

[BBC, 2021.06.01.; Global News, 2021.06.01.]

WEF, 백신 신뢰도 제고방안 도출

■ 공중보건에 가해지는 가장 큰 압력 중의 하나로 백신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세계경제포럼(WEF)은 온라인상에서 우려감과 반감을 일으키는 주요 동인들을 분석하여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법을 도출

- 인터넷 분석 플랫폼인 NetBase Quid, 런던 위생 및 열대지방 의학 학교(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백신'이라는 키워드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상에서 검색되는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
- 사람들은 백신접종의 이유로 '보호'를 들고 있으며, 백신접종을 '도덕적 의무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인 반면, 보건전문가와 인터넷 인플루언서 등이 전하는 간결하고 집중적인 백신에 대한 언급이 유명인사나 정치인의 발언보다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스템 측면의 신뢰 부족, 백신의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백신 기피 현상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백신의 종류별 언급의 차이는 안전성과 효능과 관련된 대화를 제외한다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WEF, 2021.05.25.]